



기이산지 참배길 규칙

세계유산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은 만물,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 우주에 대한 외경심을 산이나 숲에 머무는 신봉에의 기원이라는 형태로 계승해 온 일본의 정신 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들은 소중한 이 자산이 베풀어 주는 혜택을 전세계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공유할 수 있도록 참배길을 걸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겠습니다.

- 1.우리들은 '인류의 유산'을 모두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 2.우리들은 옛부터 내려오는 기원하는 마음을 갖고 걸겠습니다
- 3.우리들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마음의 교류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 4.우리들은 동식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져가지 않으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 5.우리들은 계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여유를 갖고 걸겠습니다
- 6.우리들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7.우리들은 불조심을 하겠습니다
- 8.우리들은 쓰레기는 갖고 돌아가 길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와카야마현의 세계유산 관련 내역

2000년	4월	와카야마현 교육위원회 내에 세계유산등록 추진실을 설치.
	6월	현과 관계 시·정에 의한 '와카야마현 세계유산등록추진협의회'를 설립함 현 청사 내에 '와카야마현 세계유산등록추진본부'를 설치함.
	10월	'와카야마현 세계유산등록추진 고야지역협의회' 및 '와카야마현 세계유산등록추진 구마노지역협의회'가 발족.
	11월	정부의 세계유산잠정 리스트에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의 기재를 문화청이 결정.
2001년	4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잠정 리스트에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이 기재됨.
	5월	와카야마현, 미에현 및 나라현에 의한 '세계유산등록추진3현협의회'가 발족.
	8월	와카야마현, 문화청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공동주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신앙의 산의 문화적 경관에 관한 전문가회의(신앙의 산 회의)'를 와카야마현에서 개최.
2002년	2월	세계유산등록추진 3현협의회에서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의 세계유산등록 목표를 2004년 6월로 할 것을 확인.
	5월	와카야마 '세계유산등록추진-오오헤치 지역협의회'가 발족.
	10월	정부의 문화심의회가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을 세계유산으로서 추천할 것을 양해.
2003년	1월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추천서 발송(유네스코 접수 27일)
	10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에 의한 현지조사 (11일~19일)
2004년	6월	제28회 세계유산위원회(중국 쑤저우·28일~7월 7일)
	7월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세계유산등록 결정(1일 일본시간18:12) 정식등록(7일 일본시간18:26)
	9월	혼구초에서 세계유산등록기념 3년 공동행사 '심라만창~기이산지로 부터의 기원~'을 개최
2005년	3월	와카야마현 세계유산조례 공포 (25일)
	4월	'와카야마현 세계유산센터'를 다니베시 혼구초에 설치 (1일)
	7월	와카야마현 세계유산조례 시행 (1일)

●이 리플릿에 관한 문의
와카야마현 기획부 계획국 지역진흥과
우편번호640-8585 와카야마시 고마츠바라 도오리 1-1
TEL: +81-73-441-2374 FAX: +81-73-441-2377

●세계유산에 관한 문의
와카야마현 세계유산센터
우편번호647-1731 와카야마현 다니베시 혼구초 혼구 219
TEL: +81-735-42-1044 FAX: +81-73-42-1560
<http://www.sekaiisan-wakayama.jp/index.html>
표지사진: 구마노가와 운해



PRINTED WITH SOYINK

이 리플릿은 환경친화적
시도되었습니다.



2006.11

세계유산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WORLD HERITAGE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일본의
정신문화가
숨쉬는다.

와카야마현

여유담쟁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기이산지는 태평양쪽으로 뒤흔어나온 기이반도의 대부분을 가리키며 표고 1000~2000m급의 산맥들이 동서 또는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연간 3000밀리미터를 넘는 풍부한 강우량이 울창한 삼림을 키워온 산악지대입니다.

기이산지는 신화시대부터 신들이 진좌하는 특별한 지역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진언밀교)」도 기이산지를 산악수행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또한 불교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신불융합」이라는 일본 고유의 사상과 「말법사상」이 확산되어 기이산지를 「정토」에 비유하거나 수험도와 같이 산악수행에 의해 초자연적인 힘을 획득하는 등 수행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이산지에는 「오시노·오오미네」

「구마노산잔」, 「고야산」과 같은 세 곳의 「산악영지」와 그곳에 이르러까지의 「오오미네오쿠가케미치」, 「구마노 참배길」, 「고야산초이시미치」 등의 「참배길」(순례길)이 형성되어 도읍을 비롯한 전국에서 참배객들이 찾아들어 일본 종교·문화의 발전과 교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은 와카야마·미에·나라의 3현에 걸쳐 있는 「기이산지의 자연」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었던 「산악영지」와 「참배길」 및 주위를 둘러싼 산과 숲·강·폭포·온천·전원풍경 등의 「문화적경관」이 주역이며 일본에서 유일할 듯, 세계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자산인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구마노 참배길은 널리 구마노도로 불리워 친숙해져 왔다.



영지

오시노와 오오미네
구마노산잔
고야산

참배길

오오미네오쿠가케미치
구마노참배길
고야산초이시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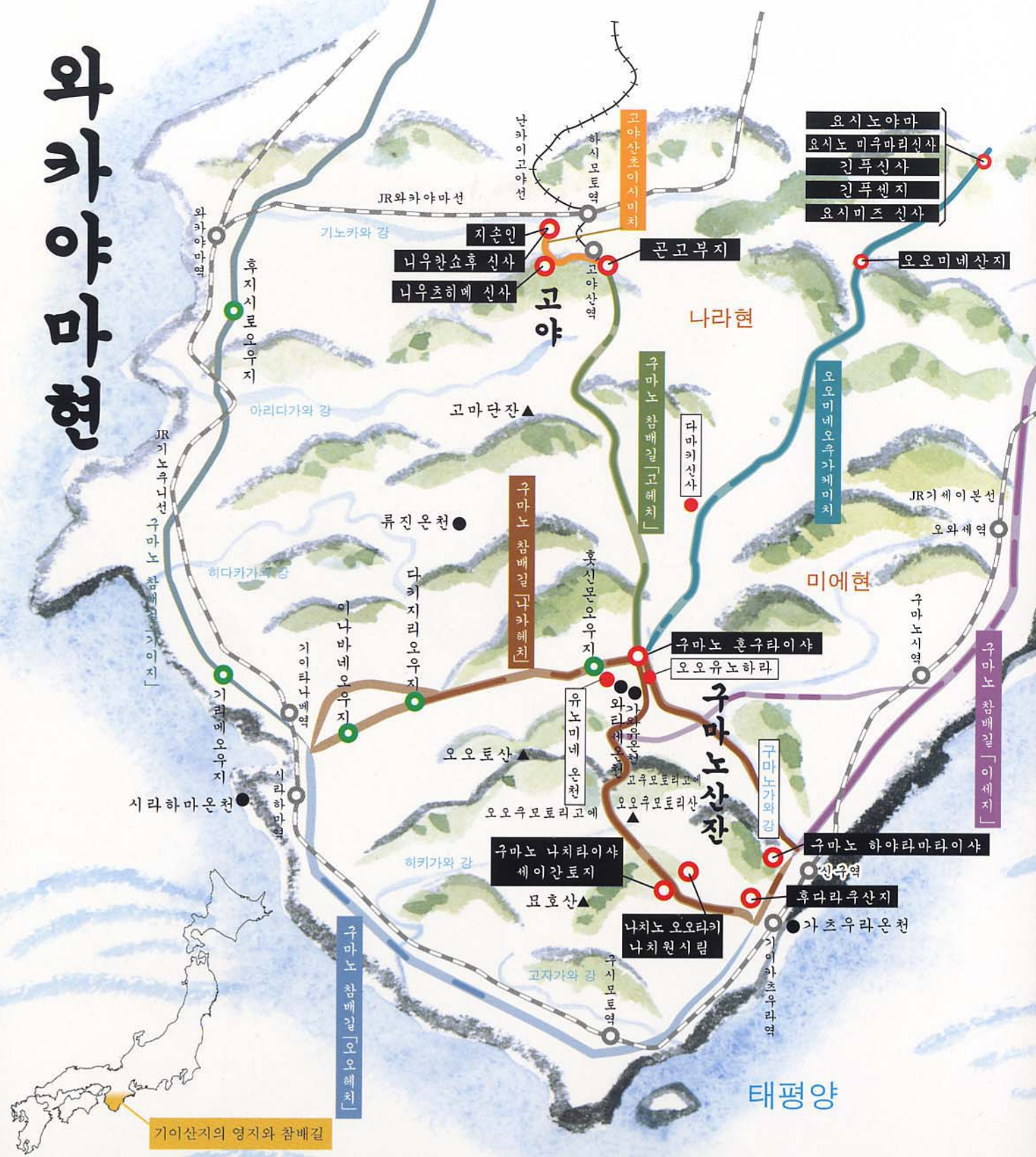
문화적 경관

산, 숲, 강,
폭포, 온천, 전원,
거리풍경 등

문화적 경관

「문화적 경관」이란 「자연과 인간의 영위가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풍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산」과 「숲」, 「계단식 논」이나 「포도밭」, 「정원」이나 「공원」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과 수목, 바위나 폭포와 같은 자연물도 자연적 요소가 강한 종교와 관련되므로써 「문화적 경관」이 되는 것입니다.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은 단순히 「신사와 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산악신앙의 영지와 산악수행의 길」이며 기이산지의 자연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산악영지와 참배길의 「문화적 경관」을 보호해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사나 사찰 등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반이 되는 자연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몇 대에 걸쳐 계승되고 보호되어 온 이 「문화적 경관」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마노의 사계절의 아름다움

[봄] 유노보리 행사
신위를 모신 가마와 어린이의 행렬이 봄꽃으로 만발한 길을 행진하는 구마노 혼구타이사의 행사

[여름] 나치의 불축제
별첨계 타오르는 대형 횃불의 불꽃, 흩날리는 불뿔, 신이 자리한 대폭포에서 펼쳐지는 불의 축제

[가을] 후쿠사다의 큰 은행나무
늦가을이 되면 황금색으로 빛나는 큰 은행나무, 구마노를 찾는 사람들을 만끽한다.

[겨울] 등 축제
환한 타는 횃불을 손에 들고 흰 옷에 새끼줄을 몸에 감은 사나이들이 일제히 등계단을 뛰어내려간다.

고야의 사계절의 아름다움

[봄] 세조신인의 빛나무
수령 300년의 빛나무가 물들어 이국적이고 찾아온 고야의 봄의 도래를 알린다

[여름] 홋불축제
약 10만개나 되는 홋불 행렬이 환상적인 세계로 이끈다

[가을] 자바라미치의 단풍
부드러운 가을 바람에 고야에 물들어가는 단풍잎이 하늘거린다

[겨울] 설경의 미에도
눈에 쌓인 풍경은 청정한 공기와 정적함이 감돈다.

고야

영지 「고야」는 816년에 구카이가 진언밀교의 선을 쌓는 도장으로서 창건한 「곤고부지」 산 아래에 건설된 「지손인」, 간쇼후쇼를 진호하는 신사인 「니우칸쇼후 신사」, 곤고부지와 지손인의 중간에 있어 곤고부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니우츠히메 신사」로 구성된다. 고야산은 약 1200년간 신앙의 산으로서의 역사를 지닌 산 위의 종교도시로서 사원과 촌락이 일체가 된 신앙에 관련된 문화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단상가람에 있는 곤존대상은 진언밀교의 중심도장으로서 건립되었다. 본존은 태장 다이니치 여래와 금장계의 4불상이 안치되어 있고 16개의 기둥에는 각각 대보살이 그려져 있다.



곤고부지 (단상가람)

진언밀교의 교의를 표현한 독특한 가람 배치를 보여준다. 본당 안채와 더불어 '양 단'이라고 불리며 고야산의 종교상의 중요한 성역이다.



니우츠히메 신사

고야산의 진호 신사로서 알려지며 1868년의 신불분리령에 의해 불교에 관련된 당탑이 철거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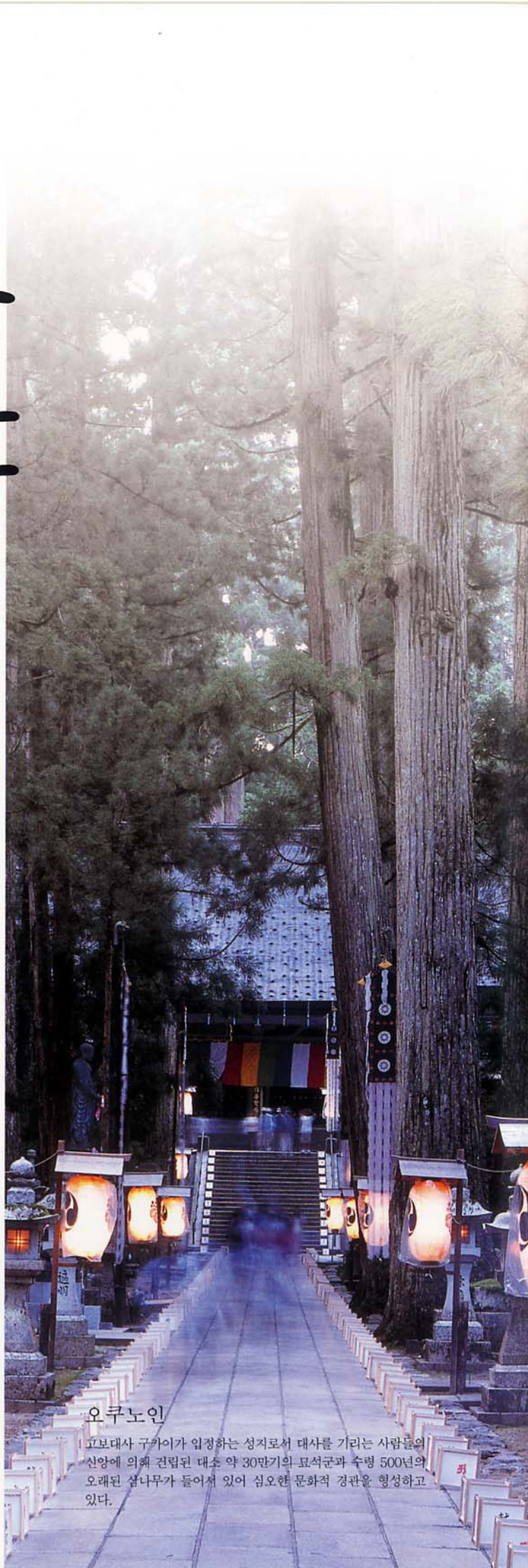
지손인

기노카와 남쪽 강가에 건립된 사원으로서 본당인 아미다도에는 본존인 국보 미륵불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니우칸쇼후 신사

고보대사가 고야산록에 정정을 돕고 있어 그 진호를 위해 니우츠히메, 고야노미코의 두 신을 모신 신사.



오쿠노인

고보대사 구카이가 임정하는 성지로서 대사를 기리는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 건립된 대소 약 30만기의 묘석군과 수령 500년의 오래된 삼나무가 들어서 있어 심오한 문화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유산

1972년의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 이른바 「세계유산조약」에 근거하여 인류공유의 돌도 없는 소중한 재산으로서 '국제적'으로 보호·보존해 가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유적'이나 '건축물', '자연' 등을 말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있을 것이 절대 조건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산의 내용이 달리 유래가 없는 고유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정해진 평가 기준에 비추어 '현재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조건입니다. 또 자산의 가치에 걸맞은 유효한 보존 관리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필요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7월 현재 세계에서 830건, 일본에서는 1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는 자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 나라에서는 원칙으로서 같은 종류의 것을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의 역사나 문화, 자연을 대표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유적 | 소재지 | 도도부현 | 등록년수 |
|-------------------------|---------------|---------------|------|
| ① 호류지 지역의 불교건축물 | 나라현 | 나라현 | 1993 |
| ② 히메지성 | 효고현 | 효고현 | 1993 |
| ③ 야쿠시마 | 가고시마현 | 가고시마현 | 1993 |
| ④ 시라카미산지 | 아오모리현 | 아카하현 | 1993 |
| ⑤ 옛도음 교토의 문화재 | 교토부 | 시가현 | 1994 |
| ⑥ 시라카와고·고카이마의 합장 형식의 촌락 | 기후현 | 도야마현 | 1995 |
| ⑦ 이츠쿠시마 신사 | 히로시마현 | 히로시마현 | 1996 |
| ⑧ 히로시마의 평화기념비(원폭 돔) | 히로시마현 | 히로시마현 | 1996 |
| ⑨ 옛도음 나라의 문화재 | 나라현 | 나라현 | 1998 |
| ⑩ 닛코의 신사와 절 | 도치기현 | 도치기현 | 1999 |
| ⑪ 류큐왕국의 구스크 및 관련유적군 | 오키나와현 | 오키나와현 | 2000 |
| ⑫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 와카야마현·미에현·나라현 | 와카야마현·미에현·나라현 | 2004 |
| ⑬ 시레토코 | 홋카이도 | 홋카이도 | 2005 |
- ※야쿠시마, 시라카미산지, 시레토코는 자연유산, 그 밖에는 문화유산

일본의 세계유산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등록자산 목록

자산	종별	연대	개요	소재현명
구마노 혼구타이샤	유적	1891	구마노 산전을 구성하는 3대신사의 하나	와카야마현
구마노 하야타타이샤	유적 문화적 경관	(유사 이전)	거석송배에서 기원하여 구마노 산전을 구성하는 3대 신사의 하나	와카야마현
구마노 나치타이샤	유적 문화적 경관	(유사 이전)	폭포송배에서 기원하여 구마노 산전을 구성하는 3대 신사의 하나	와카야마현
세이간토지	유적	5세기 전반	폭포에 출현했다고 하는 관음을 본존으로 하는 사원	와카야마현
나치노 오오타키	문화적 경관	(유사 이전)	고대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져 온 일본 제일의 폭포	와카야마현
나치 원시림	문화적 경관	(유사 이전)	신의 영역으로서 보호되어 온 원시림	와카야마현
후다라쿠산지	유적	5세기 전반	관음의 정토 '후다라쿠산'에 도합하는 신앙의 거점사원의 유적	와카야마현

구마노 산전

니우츠히메 신사	유적	(유사 이전)	곤고부지의 진호 신사 및 불교시설의 유적과 참배길	와카야마현
곤고부지	유적	816	진언밀교의 수행 도장으로서 창건된 곤고부지의 경내	와카야마현
지손인	유적	9세기 전반	곤고부지의 정청에 창건된 사원	와카야마현
니우칸쇼후 신사	유적	9세기 전반	곤고부지 정청의 진호로서 환청된 신들을 모시는 신사	와카야마현

고야산

요시노야마	유적 문화적 경관	(유사 이전)	산악신앙과 수험도의 성지	나라현
요시노 미쿠마리신사	유적	(유사 이전)	요시노야마의 지주신을 모시는 신사의 유적	나라현
긴푸신사	유적	(유사 이전)	요시노야마의 지주신을 모시는 신사의 유적	나라현
긴푸센지	유적	12세기	수험도의 중심사원 및 부속시설 유적	나라현
요시미즈 신사	유적	12세기	긴푸센지에 부속된 사원의 유적	나라현
오오미네산지	유적	8세기 초엽	수험도의 본존이 출현했다고 하는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사원을 중심으로 한 수험장 및 유적	나라현

요시노 오오미네

구마노 산케이미치	유적 문화적 경관	10세기 전반 이전	구마노 산전까지의 수많은 참배자가 지나간 길(총길이 196.7km)	와카야마현·미에현·나라현
나카헤치	유적 문화적 경관	(유사 이전)	교토와 구마노 산전 및 구마노 산전을 서로 잇는 가장 중요한 참배길(총길이 88.8km)	와카야마현·미에현
오오헤치	유적 문화적 경관	8세기	기이반도 서쪽해안을 지나는 참배길(총길이 10.0km)	와카야마현
고헤치	유적 문화적 경관	1573 이전	고야산과 구마노 산전을 잇는 참배길(총길이 43.7km)	와카야마현·나라현
이세치	유적 문화적 경관	10세기 후반 이전	기이반도 동쪽해안을 지나 이세신궁과 구마노 산전을 잇는다(총길이 54.2km)	와카야마현·미에현
고야산초이시미치	유적 문화적 경관	9세기 전반	고야산 아래의 지손인에서 고야산 오쿠노인에 이르는 참배길(총길이 24.0km)	와카야마현
오오미네오쿠가케미치	유적 문화적 경관	8세기 초엽	요시노·오오미네와 구마노 산전을 잇는 수험자의 수행의 길(총길이 86.9km)	와카야마현·나라현

참배길

구마노 참배길



나카헤치

연도에 있는 구마노 신의 미코신을 모시는 '오우지' 또는 그 유적이 전해한다. 구마노 혼구타이샤와 구마노 하야타마타이샤사이의 구마노가와 강이 이용되었다.



오오헤치

해안미를 즐길 수 있다. 17세기부터는 관광을 겸한 사람들이 이용했다.

세계유산의 참배길로서 등록되어 있는 얼마 안되는 온천과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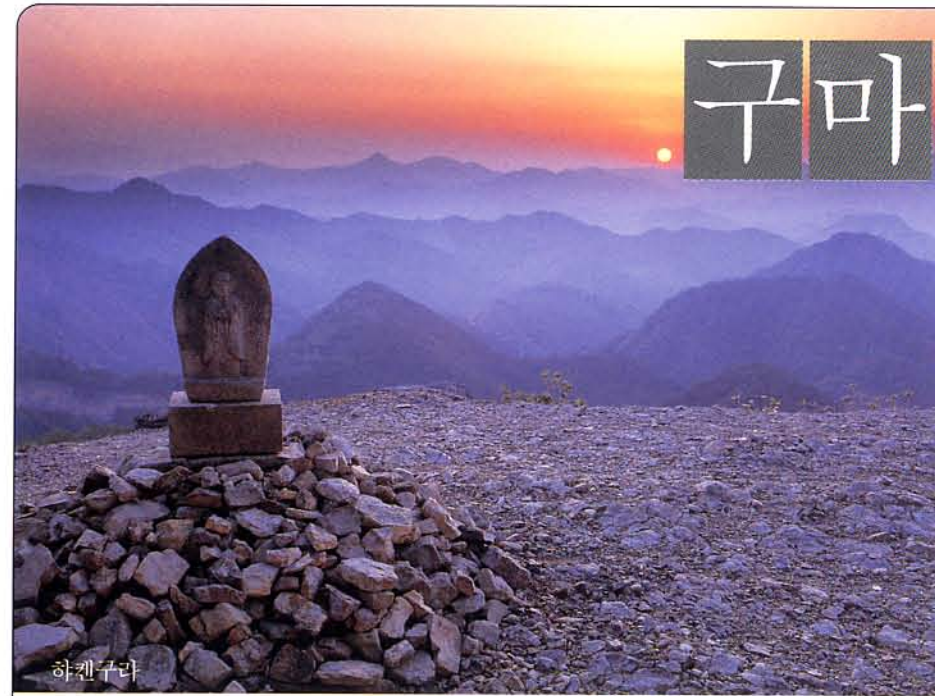
유노미네 온천

12세기 초기에는 이미 온천이 있었다. 구마노 권현은 불치병까지도 고친다고 하는 신앙의 중심지이며 오구리 관광 전설로도 알려져 있다.



구마노가와 강

10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구마노 혼구타이샤에서 배를 이용하여 구마노 하야타마타이샤에 참배했다. '구마노가와 강'은 강참배길로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겐구과

구마노산잔(혼구·하야타마·나치의 3신사)을 오르려면 세 갈래길이 있었다. 구마노 참배에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기이반도서쪽 해안을 거슬러 올라 다나베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나카헤치」, 다나베에서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오오헤치」, 고야산과 구마노를 잇는 「고헤치」, 기이반도의 동쪽 해안으로 올라가는 「이세지」다. 구마노산잔까지의 참배는 10세기부터 시작되어 14세기까지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수많은 참배자가 줄을 지어 걸었다 하여 「개미의 구마노 참배」라고 표현되었다. 근세에는 구마노산잔까지의 참배를 포함한 서쪽지방순례의 루트가 되었다.

이세지

주로 동쪽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한 길. 참배길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세전구과 서쪽지방순례가 왕성해지는 17세기부터다.

오오미네오쿠가케미치

요시노와 구마노를 잇는 수험자의 수행길. 요시노에서 구마노까지 2000m 가까운 산들의 산등성이를 타고 이어져 있으며 도처에 행장이 마련되어 있다.

고헤치

구마노 참배길 중에서 가장 험난한 길로서 표고 1000m를 넘는 고개를 3개나 넘어야 한다.



후타츠도리이

17세기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참배길로서 단조가람(절)과 산 아래의 지손인, 단조가람(절)과 분당 안채사이에 소토바가타의 정석이 1정(약 109m)마다 세워져 있다. 정석에는 단조가람(절)으로부터의 정지의 개수, 금강계, 태장계의 제존의 범자, 봉납자의 이름, 건립연월일 등이 새겨져 있다.



이 고야산초
시야산초
미야산초
치야산초

구마노

영지 「구마노」는 구마노 혼구타이샤, 구마노 하야타마타이샤, 구마노 나치타이샤, 세이간토지, 후다라쿠산지의 3신사 2절로 구성된다. 3신사는 서로 다른 자연승배에 기원을 가지고 있으나 주제를 서로 권칭하여 「구마노 3곳 권현」으로서 또 신불융합의 상징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세이간토지는 서쪽지방순례의 첫번째 패를 받는 곳으로서 후다라쿠산지는 후다라쿠토카이 신앙으로 알려진 사원이다.



구마노 혼구타이샤

고대에 창사된 이래 오오유노하라에 진좌해 있었으나 1889년의 물난리 이후 가미온사 3동을 현재의 위치로 이축한 것이다.



구마노 하야타마타이샤

구마노강 하구에 진좌하며 경내에는 신목이라 불리우는 천연기념물인 '죽백나무'가 장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구마노 나치타이샤

나치 대폭포를 신으로 모시는 원시신앙에 기원한다. 구마노 12곳 권현을 모시는 외에 나치 대폭포를 신격화 한 '히로우권현'을 아울러 모신다.



세이간토지

신불분리령 이전에는 나치의 '노이런도'으로서 구마노 나치타이샤와 일체였다. 서쪽지방순례의 첫번째 패를 받는 곳으로서도 알려져 있다.



후다라쿠산지

작은 배를 타고 남쪽 해상에 있다고 전해오는 '후다라 정토'를 찾아나선 도해승을 배출한 사원으로서 알려져 있다.



오오유노하라

구마노강과 지류인 오토나시강, 이와타강의 합류 지점에 있는 모래톱으로서 1889년까지 구마노 혼구타이샤가 진좌하여 전당과 당탑들이 늘어서 있었다.

나치노 오오타키

폭 13m나 되는 곳에서 높이 133m의 수직으로 유독 선바위 위를 흘러내리는 일본 제일의 분수를 자랑하는 폭포다. 나치 대폭포의 상류에는 대폭포를 포함하여 나치 48폭포로 불리우는 수많은 폭포가 있어 수험도의 복적지로 되어 있다.